



신문사를 경영하는 일은 다른 서비스 회사나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일보다는 훨씬 어려운 점이 많다고 나는 늘 생각한다. 매스미디어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수집 가공해서 파는 일이기 때문에 고도의 지적 수준과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상우 _ 굿데이신문 회장

조직관리의 세계관으로 다가오는 도道

신문을 만드는 일은 고도의 창작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두뇌를 대량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창작과 경영을 결부시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또한 회사를 끌고 가는 최고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테크닉도 필요하지만 많은 두뇌집단을 설복시키는 철학이 없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내가 신문사의 수습기자로 출발해서 경영 일을 맡게 된 것은 그러저럭 15년쯤 된다. 그 동안에 대표이사를 지낸 언론사가 8개 사나 된다.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면서 나에게 도움을 준 책이 한 두 권이 아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박세당의 노자》라는 한권의 책은 항상 나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일러주었다.

노자老子の 도덕경을 해설한 이 책은 조선조 유학자 박세당의 원저이다. 박세당朴世堂은 조선조 인조에서 숙종 연간에 살아온 학자로, 32세에 벼슬길에 나갔다가 40세에

《박세당의 노자》
박세당 지음 | 김학목 옮김 | 예문서원 | 312쪽 | 값 13,000원

은퇴한 사람이다. 그는 짧은 기간 사회활동을 했지만 노자에 대해 깊은 지식과 철학을 지녀 후세에 뜻있는 저서들을 남겼다.

이 책은 동양 철학자 김학목 교수가 역주해서 1999년에 펴냈다. 노자의 사상이 원래 심오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 두 학자의 도움으로 나는 감명 깊게 본 구절이 많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사업을 전개하는 일이나 사람을 다루는 일에서 지침이 된 구절들이 많다. 여기 생각나는 몇 구절을 적어 본다.

‘남아 놓고도 소유하지 않으며, 위해 주면서도 내세우지 않으며, 일이 완성되어서도 지쳐하지 않는다. 지쳐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노자는 주로 도道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 실천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도를 사업이나 경영의 최고 경지를 말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의 말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와 닿는 것이 있다.

‘남아 놓고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창업자나 가진 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구절이다. 경영자들이 이 구절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가 하면 ‘일이 완성되어서도 지쳐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우리 사원들이나 중간간부들이 새겨들어야 할 구절이다. 자기가 일구었다고 해서 기업체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는 물론 안 될 일이다.

노자는 선善과 아름다움美을 최상의 도덕으로 본 것 같다.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이 첫째 과제인 것 같다. 마음을 비우고 도를 이루는 길을 노자는 물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최상의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릇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무르니 도에 가깝다. 거처는 지세를 따르고, 마음가짐은 연못의 고요함을 따르며...’

물과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라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그의 철학이다. 물의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시인 구상의 시에서도 발견되는데 필자는 더욱 감명받았다.

‘...강은 헤아릴 수 없는 집합이면서 단일과 평등을 유지한다.

강은 스스로를 거울같이 비워서 모든 것의 제 모습을 비춘다.

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다...’

물의 철학을 설명함에 있어 구상은 노자의 사상을 한층 구체화시켰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는 사람들의 윗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이 물의 철학을 염두에 둔다면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노자의 철학 중에 핵심되는 철학의 하나는 ‘수차무차 數車無車’라는 단어일 것이다. 박세당은 이를 ‘수레를 다 헤아리면 더 헤아릴 수레가 없다’는 단순 해석에서 출발하여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어진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은 공직의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겨들어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노자는 또한 조직의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말을 남기고 있다.

‘최상의 선비는 도에 대해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중간 수준의 선비는 도에 대해 들으면 마음에 담아두기도 하고 담아두지 않기도 하며, 형편없는 선비는 도에 대해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도를 세상의 민심, 백성의 소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